

社 說

“질적인 도약의 디딤돌이 돼야” — 창간 35주년에 부쳐

대학이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 자체 내에서 질적 도약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대학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실로 자명하다. 대학은 아무리 그 존재의 의미가 커진다고 해도 학문하는 장으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잃어버릴 수 없게 된다. 학문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은 탐구의 자유가 최대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는 바로 ‘대학성’과 같은 특질의 매체에 의해 올바르게 향유될 수 있게 된다.

대학주보는 경희의 한 부분이지만, 경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새로운 용기와 지혜를 불어넣어 주었으며 또한 경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될 때 예리한 비판과 아울러 책임 있는 제책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한편 대학주보는 때때로 경희가 처해있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거나 혹은 경희발전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지적하는데 과감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대학주부가 오늘의 시점에서 자아의 태도를 경자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지금까지 우리 경희대학이 외형적인 면에서 성장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그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서 발전해 왔다면 앞으로는 민주주의적 사회체제에서 그 발전모형을 추구해 나가

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경희발전’은 산업사회의 다원화된 구조속에서 대학의 자율적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복잡한 변화와 더불어 경희대학의 발전방향도 실로 새로운 차원에서 모색되고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요구인 것이다.

여기서 대학주부의 역할은 막중한 것이다. 대학주부는 우리 경희대학이 질적인 면에서 최고의 지식사회로서의 면모와 최고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대학과 같은 지식사회의 발전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 내부에서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될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경희연구의 자유화와 학사운영의 민주화를 실현하지 않을 때 대학의 질적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의 경희대학은 상업주의와 권위주의 및 권위주의의 반지성주의적 경향에 의해 일종의 퇴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대학주부는 대학의 질적발전과 필수적인 건전한 학사운영을 이끌어 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학주부가 대학의 제위상을 찾아내고 질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의 내적 능력을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질적으로 우수한 대학주부가 존재할 때 대학의 질적인 발전도 용이해 질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제이다.

대학주부가 지식사회의 비관과 참조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 대학주부는 대학 질적발전의 가치와 권위를 충분히 인정받게 될 것이다. 창간 35주년의 의미는 바로 여기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총장 축하



조영식 총장

대학주부의 창간 35주년을 모든 경희인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돌아가 보면 1955년 우리 경희가 막 시작한 용비의 나라를 시작할 무렵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과 우리의 영원한 이상인 ‘문화세계’의 창조를 향한 기발을 높이 내걸고 출발한 우리 대학주부는 그동안 경희의 파수꾼으로서 창간한 대학문화의 창조를 선도적으로 역할을 다하고 아울러 우리 경희의 경이로운 기적의 역사를 창조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모든 대학주부 가족들

동문회장 축하

먼저 대학주부 창간 35주년을 맞아 대학주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학주부는 창간 초기부터 시작했던 대학주부의 첫걸음과 함께 한해 한해 성장해온 대학주부의 자라난 것에 또다른 감동을 느끼며

“대학이라는 상아탑속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의 길잡이로 솟구칠것을 의심치 않아”

그 당시 이자리를 지켰던 많은 대학주부동문들과 구성원들이 이제는 반백이 되어 사회전반에 패용을 수 없는 위치를 점유하고 한해 한해 성장해온 대학주부를 본다는 것에 부들함을 느낀다.

대학주부와 아직도 미약하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전의 말이 될지는 몰라도 대학주부에 있어 한해

이 경희정신을 생활화하여 대학의 귀와 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음을 의미하며 여기에 다시 한번 다 뜻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우리 경희는 역사적인 개교 40주년을 앞두고 다시금 희망의 개교 50주년을 바라보며 새로운 제2의 도약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러한 민족적 애국적 열정에 힘입어 민족의 21세기 종합문화사회의 이끌어 갈 대학중의 대학으로서 곳곳이 서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경희의 이름 아래 굳게 뭉쳐 일대약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코 ‘나’가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에 모조리 한 마음이 되어 일로매진해야 할 것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대학주부의 새로운 소명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40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속에서 참다운 우리 경희정신을 재확인함과 아울러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나침반으로서의 역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학주부가 안고 있는 시

“창간 35주년을 축하합니다”

한해를 더해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것 이상의 값고 비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매주마다 쏟아져 나오는 신문의 장수만큼, 아니 그 신문지 면에 박혀진 수천, 수만의 활자만큼의 답과 지혜와 고통의 응결체인 까닭이

다. 매주마다 신문을 만드는 일을 일대 대와 출판의 고통을 비견한다 해도 전히 과장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학생이라는 신문에 서 단순한 과외활동이상의 노동력의 확산? 한국적인 특수상황에서 대학이 대학본연의 임무에 몰두할 수만은 없었고 따라서 대학신문 또한 대학이라

군현을 잃지 않으며 가지 있고 보람있는 건전하고 참신한 대학문화 창조하는데에도 슬기로운 노력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주부의 터전은 대학이며 대학은 끝없는 연구와 문화가치를 창조하여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인류문명의 진보를 위해 봉사하는 곳입니다.

“냉철한 이성과 저널리즘의 조화로 경희 용비의 나침반이 되기를”

대차서 대학문화는 결코 그 대학만의 것이 아니며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온 인류의 문화를 개척하고 살찌우게 하는데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대학문화 창조의 선봉인 대학주부의 존재의미가 무엇이며 어떠한 대담과 각오가 함께 하여야 하는지를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뜻깊은 대학주부의 창간 35주년에 즈음하여 모든 경희가족의 따뜻한 격려를 기대하며, 아울러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참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윤보훈 회장님 10월

말해주듯 그간 선배가들이 쌓아온 빛나는 전통과 활력있는 패러다임은 현역기자들과 개척정신이 어우러져 오늘날의 대학이나 대학바깥의 사회모습을 정확하게 대학주부는 투명해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역사를 바로 세워나가는 데 든든한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시한번 창간35주년을 계기로 현 대학주부구성원들과 35년 역사의 한자리를 차지했던 선배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항상 대학주부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이는 모든 경희동문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대학주보 연혁

▲1955년 5월 12일 : 신동대학보라는 제호로 창간, 전(前) 보건소 건물에서 매월 15일과 30일 발행, 초대주관 이원우 교수 편집국장 이규종 교수.

▲1956년 10월 : 제8호부터 월2회 발행에서 주간(旬刊)체제로 변경, 편집실 교사사로 이원우 편집국장, (편집부·업무부·조사부·분리)

▲1958년 5월 15일 : 창간3주년 기념사업으로 자체적인 연차지 ‘University Life’ 창간

▲1960년 3월 25일 : 지령 100호발간, ‘경희대학주보’로 제호변경, 발간부수 1만부로 확대.

▲1963년 3월 : 106호부터 지금의 제호인 ‘대학주보’로 변경

▲1963년 3월 : 신문부수 1만5천부로 확장

▲1964년 9월 18일 : 대학신문사상 처음으로 ‘대학뉴스’의 일간지 발행

▲1964년 9월 18일 : ‘대학원’을 타블로이드판 4면으로 월1회발간. ▲9월 25일 : 신문발행부수 당시 최대인 2만부로 확장

▲1965년 3월 : 대학주보·방송국·영자지 통합 신문방송국으로 개편

▲1979년 : 매주 4면체제에서 월1회 8면체제로 교체

▲1981년 : 주간 4면·8면체제로 변경

▲3월 9일 : 700호 발행

▲1982년 : 매주 8면체제 정착

▲1984년 4월 2일 : 지령 200호를 발행하면서 현행과 같은 ‘가토쓰기 신문’ 도입

▲1985년 3월 11일 : 주간 12면 발행

▲5월 5일 : 상왕인식과 수상과파 대학주보편집위원회 발간

▲1987년 11월 10일 ~ 13일 : 자유언론쟁취를 위한 신문제작거부 및 철야농성 (사진 검열철폐투쟁)

▲1988년 3월 14일 : 창간33주년 지령 900호 발행

▲1990년 5월 12일 : 창간 35주년

(고) (황) (만) (평)



“불법집회이므로 원천봉쇄합니다.”

일제가 지어준 오줌싸개

나에게는 ‘별명’이 뚜렷한 것이 없다. 위나 평범한 성격에 그렇다 할 매력도 없기 때문일 것으로 자위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지워지지 않는 원망스러운 별명이 한가지 있다. 그 별명은 ‘오줌싸개’인 것이다. 한때는 나의 인격에 대한 모독으로 느끼곤 하였다. 어릴적 국민학교 때 인격으로 기괴하다.

당시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로 일본의 교육 현상과는 사뭇 다른 때였다. 오줌을 의 젊은 학생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사연이 즉 대청소 시간에 일어난 일이다. 복도를 지나 가시던 김산선생님이 유리창을 청

소하고 있는 나에게 가져왔던 땀을 때렸다. 나는 아무 염문도 모르고 살짝 두들겨 맞았다. 어인이 그렇게 아팠는지 오줌을 복도 복판에 흘려 똥이 아른 나의 땀보다도 체면에 많이 아니었다. 그 후로 나의 별명은 ‘오줌싸개’로 큰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나중

에 알고 보니 웃으면서 유리창 청소를 하였다는 그 소이치고는 너무나도 가혹한 인격의 모독이었을 것이다. 사연이 즉 대청소 시간에 일어난 일이다. 복도를 지나 가시던 김산선생님이 유리창을 청

나는 요즘에도 기쁘게 웃을때면 또 오줌을 싸지 않을까하는 기우가...

5월주제 ‘별명’

교사의 영향이 대를 이어 계속된다는 옛말이 결코 우연이 아닌 교육현상으로 간주된다. 오늘날은 교육실습을 마치고 들어온 학생을 맞아 강의도 잘 못하면 별명에 대한 흥미가 생긴다.

교육실습중에 어떤 별명을 갖고 돌아왔느냐의 질문에 학생들은 사뭇 웃는 낯으로 인상좋은 별명으로 불리게 됐다. ‘자랑삼아’ 이 야기한다. 나처럼 ‘오줌싸개’의 별명이 아닌 아마도 페스타로치 선생님이로 불리셨을게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한 공 우 (사범대 교수·교육학)

어 내는데 있었다. 이라다보니 자연 제법이 가져왔이 가해 줬으리라 짐작이 간다. 그러나 민주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허용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다른사람이 침해 할수 없는 인격에 대한

존엄성을 갖고 있다. 교사라고 하고 마구 때리고 욕박지르는 권위로서 학생을 무시할수는 없다. 그러므로 교사가 할수 있고 또한 하여야 할일은 그의 우수한 경험과 학식과 예의를 동원하여 학생의 갈 길을 밝혀주고 바른길을 찾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생명은 있는 조화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는 일부 교사를 볼 때마다 참교육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신록의 5월이, 스승의 날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다시금 오줌싸개 학생이 태어나지 않는 교육환경의 개선이 있어야겠다. 오늘 강의 시간에 교육실습을 마치고 들어온 교생의 호소할 미소에서 참다운 인격의 도야가 어떤 것인지 실감을 하게 된다. 정녕 그들이 자니고 있는 별명속에서는 늘 밝은 미소가 간직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 그 무엇을 또 기대했는가.

작은 꿈들이 모여 힘있는 나라를 만듭니다 ③



“오빠! 맹물로 가는 자동차가 있다면 참 좋을거야. 그렇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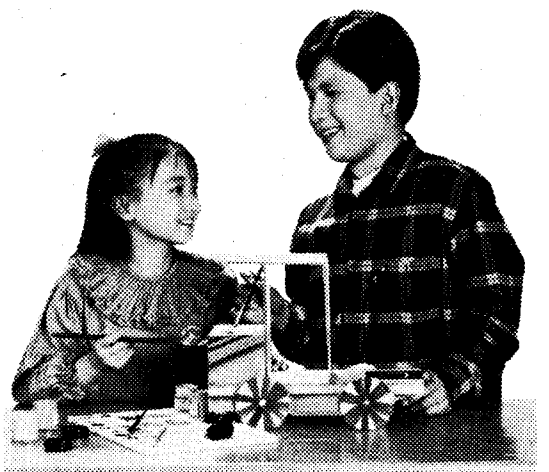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물은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수소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단다. 따라서 물에서 수소를 분리해 그 에너지를 힘으로 사용할수만 있다면 맹물로 가는 자동차도 만들 수 있을거야.

자동차가 맹물로 가게 되면 석유 한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기름 걱정 안해도 될거고, 또 수돗물을 넣고 싼나라 달리다 다시 시냇물 한바가지 부어넣고 부응 - 정말 편하고 좋겠지?

그런데 맹물만으로는 자동차를 개발해서 시험하는 등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왔지만 아직 아무도 맹물로 가는 자동차를 완성시키지 못했단다.

그러나 유정이가 지금부터 꿈을 갖고 연구해서 만들어보면, 지금까지 세상을 편리하게 만든 크고 작은 발명품들도 처음엔 모두 작은 꿈으로부터 시작했단다.

상상해봐, 맹물로 가는 자동차의 여류발명가 조윤정 - 정말 멋지고 신나지 않겠니?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나라의 미래는 밝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작은 꿈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S대 화학교과 2년 조준

현대자동차